

#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Attachment, Self-Esteem and Impulse Control on Adolescent Delinquency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경 님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A Univ.

Prof. : Kyung-Nim Lee

###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adolescent attachment to mothers and peers, self-esteem and impulse control on delinquency. The subjects were 624 eighth and eleventh grade students in Busan. The subjects rated themselves on questionnaires regarding attachment to mothers and peers, self-esteem, impulse control and latent delinquenc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Male adolescent delinquency increased with grade. But no grade difference was found in female adolescent delinquency. And male adolescent had more delinquency than female adolescent.
- 2) Grade had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rough attachment to peers and impulse control on male adolescent delinquency and was the first positive contribution factor. Impulse control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male adolescent delinquency. Attachment to mothers ha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through self-esteem on male adolescent delinquency. Attachment to peers ha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through self-esteem and impulse control on male adolescent delinquency. Self-esteem ha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through impulse control on male adolescent delinquency.
- 3) Attachment to mothers had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rough impulse control on female adolescent delinquency and was a first negative contribution factor. Impulse control ha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female adolescent delinquency. Attachment to peers ha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through impulse control on female adolescent delinquency. Grade had an indirect negative effect through impulse control on female adolescent delinquency. Self-esteem had no effect on female adolescent delinquency.

주제어(Key Words): 애착(attachm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충동통제(impulse control), 청소년의 비행(adolescent delinquency)

##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인간발달의 단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 시기이다. 이 시기동안 청소년들은 외모와 생리적 기능이 성인과 유사해지며 논리적, 추상적 사고능력이 발달되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져 사회성이 발달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은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적응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이러한 과정을 순조롭게 경험하지는 않으며 부적응의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시기동안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발달에 적응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동기보다는 더 많은 학업성취의 부담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의 욕구가 증가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더욱이 청소년은 주위에 산재해 있는 여러 유혹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므로 생의 어느 시기보다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부적응 행동의 하나가 비행이다. 청소년의 비행은 법적인 관점에서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강도, 살인, 강간, 방화, 상해, 공갈, 협박 등의 법률적 일탈행위에 관심을 둔다. 그런데 사회적 관점에 의하면 청소년의 비행은 무단결석, 가출, 학교폭력, 상습적 흡연, 음주, 유흥장 출입, 성행동, 본드나 부탄가스 사용 등의 사회나 집단생활 부적응 행동 및 비도덕적 행동, 미성년자 금지행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이은아, 정혜정, 2000). 최근 청소년 비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더 다양화, 흉포화되고, 이러한 경향이 어린 연령층으로도 확산되는 경향이다(정옥분, 1998; 서은란, 2001).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적응의 위기를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성인기의 범죄행동과도 연관이 된다(Loeber, 1982). 또한 그들의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 병리적 문제를 야기시키게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면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변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김희화, 김경연, 2000; 남현미, 옥선화, 2001; 민수

홍, 1998; 이은아, 정혜정, 2000; 전귀연, 1998; 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 1992). 먼저 청소년 비행의 연령과 성차이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비행행동은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민수홍, 1998).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시기에 처음으로 비행행동을 경험하고 고등학교시기 동안 비행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준호, 1993; 김현숙, 1998; 이은아, 정혜정, 2000). 또한 상당수의 연구들에 의해 남자청소년의 비행이 여학생보다 더 많음이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김경연, 2000; 심희옥, 1997; 이명우, 1997).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변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비행이 왜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며 일차적으로는 가족환경에서 그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 가족환경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중요하며 부모자녀 관계의 기초는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애착의 초기 연구에서는 영, 유아기 아동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애착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하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Bowlby(1973)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근거한다. 내적작동모델이란 영아가 생후 1년 간의 양육자와의 계속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관계에서의 작동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영아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성과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접근가능성 정도를 영아가 반복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자신과 인간관계 특성에 대한 신념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양육자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양육자를 신뢰할 수 있으며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신념을 기초로한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작동모델을 구성한다. 반면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은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며 무가치하다는 신념을 형성하며, 이러한 신념을 기초로한 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 생애 초기의 내적작동모델은 아동기나 청년기 나아가 성인기 이후 전생애에 걸쳐 자신과 타인관계 특성

의 바탕이 되어 전생애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Schaffer, 1999). 이에 따라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최근에는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어 청소년의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어머니 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소외감이 낮을수록 또한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비행성향이 낮다(김영혜, 1999; 부선희, 1999). 또한 청소년의 어머니 애착이 높을수록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심재인, 2000; Armsden & Greenberg, 1987). 이와 같은 청소년의 어머니 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의 일치된 결과는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은 비행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족관계 외에 또래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므로(Hunter & Youniss, 1982), 청소년들의 또래애착도 청소년기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반사회적 행동이 적으며(심희옥, 1998) 또래로부터 배척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비행경향이 높음이 보고되고 있다(문은영, 윤진, 1994). 이에 따라 또래로부터의 애정을 지각하고 안정감을 얻은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이 적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또래에 대한 애착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장휘숙, 1998) 청소년의 비행에 어머니와 또래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는 연구도 의의 있다 본다.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개인내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가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여러 발달 측면과 적응에 중요한 예언적 변인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의 청소년은 비행경향이 높다는데

일치되고 있으며(신중순, 1990; 심응철, 1992; Edwards, 1996), 유사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동수준이 낮다고 밝혀지고 있다(심희옥, 1998). 이는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이 주위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비행행동에 쉽게 동조하기보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보임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과 함께 많은 연구들에 의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인적 변인의 하나로 충동통제가 지적되고 있다. 충동통제는 자기통제의 중요한 하위영역의 하나로 충동적인 정서표현, 행동 및 인지적 판단을 자제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하영희, 2001). 충동통제의 실패는 학업성취의 실패, 낭비, 도박, 절도, 약물중독 등을 야기하게 하며, 또한 높은 충동성 수준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Logue, 1995). 충동성과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관련성은 국내에서도 많은 경험적 연구로 검증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높은 충동성은 비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이미경, 1995), 청소년의 자기통제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심리적 환경보다 인과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남현미, 옥선희, 2001). 또한 아동의 비행행동은 낮은 자기통제와 의미있는 관련이 있으며(민수홍, 1998), 유사하게 청소년의 충동통제가 낮을수록 금지행동은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영희, 2001). 이처럼 충동통제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들에 의해 청소년의 낮은 충동통제는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중요한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는 애착의 영향을 받아 발달된다.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타인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러한 타인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장휘숙, 1997; Armsden & Greenberg, 1987). 청

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오송희, 1998; Greenberg & Armsden, 1983).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에 부모와 또래애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장희숙, 1997). 이처럼 청소년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만족스런 애착관계는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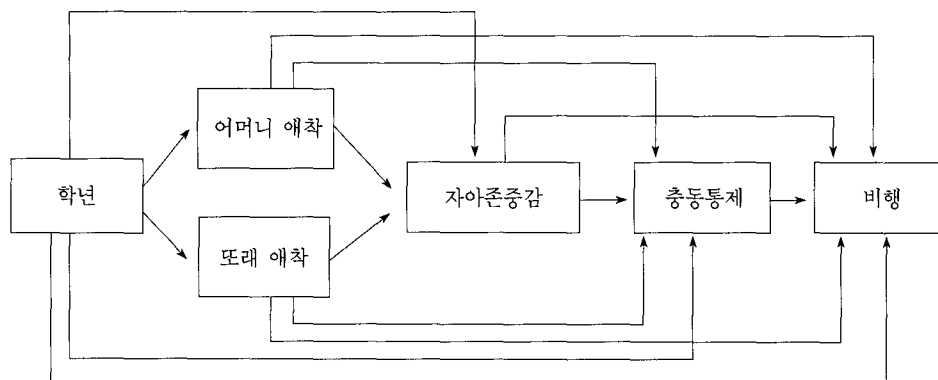
또한 충동통제는 초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이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어머니로부터 따뜻하고 민감한 애착행동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양육행동 및 아동의 충동통제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과 부모의 합리적인 기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더 잘 순응한다(Kochanska, 1997). 또한 온정적이면서도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적절한 통제와 행동조절에 도움이 된다(Silverman & Ragusa, 1990). 반면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통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경님, 2001). 그리고 또래로부터 신뢰감을 느끼고 지지를 받으면 심리적 안녕과 바람직한 적응에 도움이 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에 의해 또래애착도 청소년의 충동통제의 발달에 도움이 되리라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의 애착과 충동통제의 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찾지 못하였지만 위의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충동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충동통제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긍감(self-pride) 혹은 스스로의 보상(self-reward)이 되어 행동 통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Harter, 1983). 자기통제 능

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기보상이 되어 환경적 요구가 기대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게 된다. 아동의 높은 자아개념은 충동억제능력에 대하여 의미있는 설명력이 나타났으며(Flynn, 1984), 높은 자아존중감의 아동이 자기통제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Lowerstein, 1983). 이러한 결과들에 의해 높은 자아존중감은 충동통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와 비행간의 인과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는 비행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가 높을수록 비행은 적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를 매개로 비행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도 미칠 것이다. 즉,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높은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를 높여 비행행동이 적어지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충동통제를 매개로 비행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충동통제를 높여 비행이 적어지는 간접효과가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와 비행과의 관련성이 개별적으로 검증되었으나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인과모형에 대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 청소년의 성에 따른 접근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남학생의 비행이 여학생 보다 더 많다는데 대체적으로 일치되고 있다(김희화, 김경연, 2000; 민수홍, 1998; 심희옥, 1997; 이명우, 1997). 따라서 성별에 따른 관련변인의 차이연구는 필요하나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성별접근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비행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관련변인간의 인



〈그림 1〉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가설적 인과모형

과모형을 검토하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청소년 비행의 변화와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별에 따라 규명하여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이들 변인들간의 인과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비행은 학년(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성에 따라 어떠한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간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에 대한 가설적 인과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2개 남녀중학교 2학년과 2개 남녀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

학중인 624명의 청소년이다. 이들의 학년별,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335명(53.7%), 고등학교 2학년 289명(46.3%)이며 남학생 301명(48.2%), 여학생 323명(51.8%)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청소년

〈표 1〉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학 년	중학교 2학년	335(53.7)
	고등학교 2학년	289(46.3)
성 별	남학생	301(48.2)
	여학생	323(51.8)
어머니 연령	31~40세	176(28.2)
	41~50	416(66.6)
	51~60	16( 2.6)
아버지 연령	31~40세	67(10.8)
	41~50	470(75.3)
	51~60	72(11.5)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91(14.5)
	고 졸	376(60.3)
	초대졸 이상	134(21.4)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76(10.6)
	고 졸	299(47.9)
	초대졸 이상	241(38.6)
가계소득	150만원 이하	202(32.6)
	151만원~300만원	288(46.2)
	301만원 이상	78(12.5)

\* 빈도수가 맞지 않은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의 연령 선정이유는 청소년의 비행이 대체로 중학교 시기 동안에 시작되며(김준호, 1993; 김준호, 김은경, 1995)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시기동안 비행이 급증한다는 선행연구(김현숙, 1998)에 의해 중학생의 대표학년으로 2학년을 선정하고 고등학교에 걸친 비행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고등학교 2학년을 포함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애착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충동통제 척도 및 비행척도와 부모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1) 애착

청소년들의 어머니와 또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IPPA의 부모용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부모애착문항을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이들 문항 중 의미가 중복되거나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3문항을 제외하여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은 25문항 모두를 사용하였다. IPPA는 상호신뢰, 의사소통의 질, 소외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요인분석결과 하위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전체점수를 애착으로 통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어머니 .93, 또래 .92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

한 김이배(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긍정적 4문항, 부정적 5문항의 총 9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 3) 충동통제

청소년의 충동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하영희(2001)의 충동통제척도구성을 근거로 충동통제를 인지통제, 행동통제 및 정서통제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하영희(2001)의 충동통제척도와 이현수(1992)의 충동성 검사를 참조하여 인지통제 6문항, 행동통제 7문항, 정서통제 3문항 모두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2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14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 Likert로 부정문항은 역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5로 나타났다.

### 4) 비행

청소년의 비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선희(1999)와 김희화와 김경연(2000)의 비행척도를 참고하여 모두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비행은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으로 볼 수 있는 규칙위반, 공격 및 파괴행동, 절도, 약물남용 차원과 성도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중학교 교사 3인에 의해 내용타당도가 검토되었다. 본 척도의 문항의 예로는 '무단결석을 해본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있다' '폐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다' '환각제나 본드, 부탄가스등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 '이성과 신체적 접촉을 해 본 적이 있다' 등이다. 비행경험의 빈도를 고려하여 '없다' 1점에서 '한 두 번 있다' 2점, '서너번 있다' 3점, '대여섯번 있다' 4점, '많다' 5점으로 평점화 하여 점수화 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1년 7월 1일에서 15일에 걸쳐 부산 시에 소재하는 남·여 중학교와 남·여 인문계고등학교 4개 학교의 18학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각 학교 담당교사의 협조를 구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응답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636부였으나 이 중 부실기재된 응답지는 제외하고 최종 624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단순주효과 검증을 하였다. 연구문제 2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학년과 성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비행이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학년과 성별 비행점수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비행점수가 학년과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청소년의 비행은 학년과 성의 주효과와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학년별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단순주효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 $t=3.43, p<.01$ ]과 고등학교 2학년 [ $t=8.13, p<.001$ ]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이

<표 2> 학년과 성별 청소년의 비행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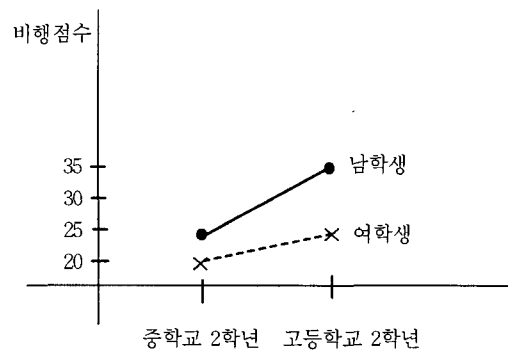
	학 년		전 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남	26,451(8,765)	33,756(11,722)	29,695(10,797)
여	23,527(6,535)	24,828( 6,240)	24,149( 6,418)
전체	24,985(7,853)	28,975(10,210)	26,817( 9,228)

<표 3> 청소년의 학년과 성에 따른 비행의 이원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학년	2803,289	1	446187,389	6265,336***
성	5317,827	1	5317,827	74,673***
학년×성	1364,701	1	1364,701	19,163***
오차	43227,443	601		
전체	491653,000	611		

\*\*\* p < .001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성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비행점수의 유의한 차이를 단순주효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간에 유의한 차이 [ $t=-6.12, p<.001$ ]가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t=-.181, p>.05$ ]. 즉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비행이 더 많아졌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청소년의 비행점수에 대한 학년과 성의 상호작용효과

## 2.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및 학년의 성별 인과모형분석

### 1) 상관관계

인과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 및 학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남녀 청소년 모두 각 독립변인간 상관계수가 .445를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회귀분석

남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인과모형에 따라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남학생<표 5>, 여학생<표 6>과 같다.

#### (1) 남학생에 대한 회귀분석

<표 5>에 의하면 남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 $\beta=.326$ ,  $p<.001$ )과 충동통제( $\beta=-.276$ ,  $p<.001$ )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22%였다. 즉 중학교 2학년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이, 충동통제가 낮을수록, 남학생은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변인 중 학년이 남학생의 비행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충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아존중감( $\beta=.222$ ,  $p<.01$ ), 또래에 대한 애착( $\beta=.206$ ,  $p<.01$ )과 학년( $\beta=-.135$ ,  $p<.05$ )이었으며 이 변인들에 의해 충동통제 총분산의 13%가 설명되었다. 이들 변인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또래에 대한 애착, 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보다 충동통제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남

<표 4>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남학생	1	2	3	4	5	6
1. 학년	1.000					
2. 어머니 애착	.035	1.000				
3. 또래애착	.256***	.253***	1.000			
4. 자아존중감	.186**	.322***	.429***	1.000		
5. 충동통제	-.033	.168**	.262***	.310***	1.000	
6. 비행	.337***	.087	.087	.110	-.221***	1.00
평균	1.45	91.460	88.767	23.280	43.063	29.694
표준편차	.50	15.190	15.782	4.763	7.630	10.797
여학생	1	2	3	4	5	6
1. 학년	1.000					
2. 어머니 애착	.103	1.000				
3. 또래애착	.259***	.402***	1.000			
4. 자아존중감	.202***	.445***	.393***	1.000		
5. 충동통제	.124*	.351***	.284***	.287***	1.000	
6. 비행	.101	-.216***	-.049	-.056	-.267***	1.000
평균	1.48	91.174	91.963	23.161	43.692	24.149
표준편차	.50	18.109	13.447	4.219	7.606	6.418

\* $p<.05$  \*\* $p<.01$  \*\*\* $p<.001$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에 대한 애착( $\beta = .308, p < .001$ )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 = .254, p < .001$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2%였다, 즉 또래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변인 중 또래에 대한 애착이 설명력이 더 높았다. 남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은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7%정도 설명하였다. 남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학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 애착은 차이가 없었다.

(2) 여학생에 대한 회귀분석

<표 6>에 의하면 여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충동통제( $\beta = -.266, p < .001$ )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 = -.210, p < .01$ )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14%였다. 즉 충동통제가 낮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여학생의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변인 중 충동통제가 더 큰 설명력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충동통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 = .225, p < .01$ )과 또래에 대한 애착( $\beta = .136, p < .05$ )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충동통제에 대한 설명력은 15%였다. 즉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충동통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변인 중

<표 5> 남학생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남학생									
	어머니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비행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학 년	1.069	.135	8.111	.256***	.770	.080	-2.030	-.135*	6.468	.326***
어머니애착					7.984	.254***	1.957	.039	-5.586	-.085
또래애착					9.368	.308***	.100	.206**	7.205	.113
자아존중감							.345	.222**	.181	.089
충동통제									-.362	-.276***
상수	15,210		15,284		4,261		7,077		8,869	
R <sup>2</sup>	.001		.066		.222		.133		.220	
F	.325		18.606***		22.205***		8.596***		12.393***	

\*p<.05 \*\*p<.01 \*\*\*p<.001

<표 6> 여학생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여학생									
	어머니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충동통제		비행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학 년	3.708	.103	6.968	.259***	1.204	.147*	.894	.059	1.509	-.114
어머니애착					8.440	.338***	9.865	.225**	-8.017	-.210**
또래애착					6.731	.212**	7.530	.136*	3.003	.062
자아존중감							.179	.102	2.587	.017
충동통제									-.231	-.266***
상수	18,045		13,008		3,745		7,063		6,225	
R <sup>2</sup>	.011		.067		.260		.148		.136	
F	3.093		21.511***		31.540***		11.496***		8.138***	

\*p<.05 \*\*p<.01 \*\*\*p<.00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큰 설명력을 보였다.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 $\beta = .338, p < .001$ ), 또래에 대한 애착( $\beta = .212, p < .01$ )이 높을수록 중학교 2학년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더 높았으며( $\beta = .147, p < .05$ ) 이들 변인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26%였다. 이들 변인 중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으며 다음 또래에 대한 애착, 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은 중학교 2학년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더 높았으며 학년은 또래에 대한 애착을 7%정도 설명하였다.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학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차이가 없었다.

3)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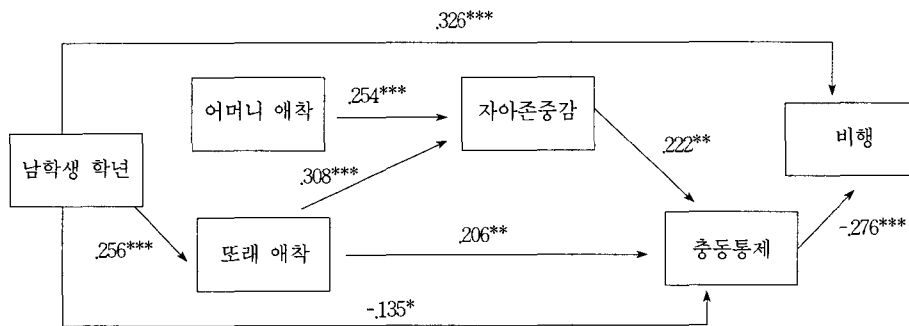
(1) 남학생에 대한 경로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남학생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학년은 남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 $\beta = .326, p < .001$ )을 미쳤으며 또래애착( $\beta = .256, p < .001$ )과 충동통제를 통하여( $\beta = -.135, p < .05$ )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충동통제가 남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276,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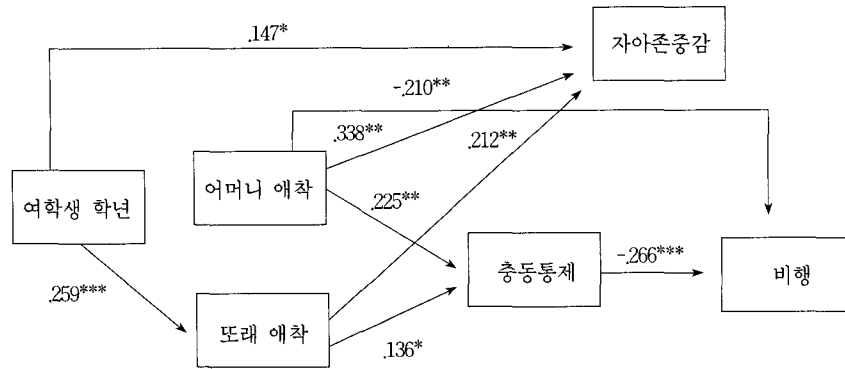
비행에 충동통제를 통하여( $\beta = .222, p < .01$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의 비행에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beta = .254, p < .001$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래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의 비행에 자아존중감( $\beta = .308, p < .001$ )과 충동통제( $\beta = .206, p < .01$ )를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각 변인들이 남학생의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2) 여학생에 대한 경로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에 따라 여학생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 의하면 충동통제는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 $\beta = -.266, p < .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 $\beta = -.210, p < .01$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충동통제를 통하여( $\beta = .225, p < .01$ )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에 대한 애착은 충동통제를 통하여( $\beta = .136, p < .05$ ) 여학생의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년은 또래애착을 통하여( $\beta = .259, p < .001$ ) 여학생의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



<그림 3> 남학생의 비행과 관련변인의 경로분석결과



<그림 4> 여학생의 비행과 관련변인의 인과모형 경로분석결과

<표 7>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각 변인의 인과효과

독립변인	남학생			여학생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 년	.326	.013	.339	-	-.009	-.009
어머니애착	-	-.016	-.016	-.210	-.060	-.270
또래애착	-	-.076	-.076	-	-.036	-.036
자아존중감	-	-.061	-.061	-	-	-
충동통제	-.276	-	-.276	-.266	-	-.266

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여학생의 비행에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각 변인들이 여학생의 비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어머니와 또래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밝혀 이들 변인간의 인과모형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비행의 학년 차이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비행경험이 더 많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비행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김현숙, 1998; 이은아, 정혜정, 2000)와 고등학교 시기동안 비행이 증가한다는 연구(곽금주, 문은영, 1993)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바 남학생은 증가되었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었다. 이로써 남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걸쳐 비행경험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걸친 비행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여학생 비행의 학년에 따른 변화에 대한 결과가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화, 김경연, 2000),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명우, 1997)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아, 정혜정, 2000)에서 보고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은 비행은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청소년의 비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어머니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 및 학년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과 충동통제이었다. 즉 중학교 2학년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이, 충동통제가 낮을수록 남학생의 비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남학생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약 22%이었다. 학년은 남학생의 비행에 가장 큰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학년은 남학생의 비행에 충동통제를 매개로 한 정적인 간접효과도 나타나 결과적으로 인과효과가 정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충동통제,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어머니 애착의 순으로 남학생의 비행에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충동통제와 어머니 애착이었다. 즉 충동통제가 낮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여학생의 비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의 여학생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약 14% 정도였다. 어머니 애착은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며, 충동통제를 통하여 부적인 간접효과도 나타나 인과효과가 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충동통제, 또래애착, 학년의 순으로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년은 남학생의 비행에는 가장 큰 정적인 영향을, 여학생의 비행에는 가장 작은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비행은 증가될 뿐 아니라, 충동통제도 낮아져 비행이 증가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동안 남학생의 또래애착이 높아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도 높아져 비행이 적어지는 부적인 간접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부적인 효과는 비교적 작아 전체적으로 학년은 남학생의 비행에 가장 큰 정적인 인과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들은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치는 시기 동안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으며, 충동통제도 낮아진다. 그리하여 이시기의 청소년들은 주위의 유혹과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시기를 거치면서 비행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또래로부터의 안정감과 신뢰가 높아져 자아존중감과 함께 충동통제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비행행동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년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정적효과와 충동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정적효과가 또래애착을 통한 부적효과보다 훨씬 더 크므로 비행행동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학생의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특히 이 시기 청소년들에게 부모나 교사의 애정과 격려 및 생활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여학생의 경우 학년은 또래애착과 충동통제를 통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비행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즉,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걸쳐 여학생의 또래애착은 높아지므로 이에 따라 충동통제도 높아져, 오히려 비행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작지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충동통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두번째로 큰 인과효과가 나타나 충동통제가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밝혀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충동성이 높을수록 비행행동이 많다는 연구(이미경, 1995)와 일치하였으며 자기통제가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남현미, 육선화, 2001; 민수홍, 1998)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태를 사려숙고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즉흥적이며, 침착성과 자제력이 결여되는 충동적인 청소년들은 학교나 사회의 요구나 기대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이나 즉각적인 충동이나 욕구에 따른 일탈적 비행행동의 경향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청소년의 낮은 충동통제는 비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는 비행행동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일시적인 만족을 위한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도모할 수 있는 충동통제나 자기통제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어머니 애착은 청소년의 비행에 여학생의 경우 부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충동통제를 통한 부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 애착은 남학생의 비행에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부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적다는 연구들(김영혜, 1998; 부선희, 1999)과 일치하며,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를 낮게 한다는 보고(남현미, 육선화, 2001),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높인다는 연구(정유미, 김득성, 1998)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과 개방적 의사소통은 충동통제의 발달에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 애착은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충동통제를 통하여 비행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도 나타나 인과효과가 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높게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일탈행동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만 발견되었다. 이처럼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어머니 애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결과의 이유로 사춘기 남학생들의 경우 동성인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지 않나 유추된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과 어머니 애착의 관련에 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아 단정적인 해석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 애착뿐만 아니라 아버지 애착도 함께 다루어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과 어머니

와 아버지 애착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래애착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남학생의 경우 또래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를 통하여, 여학생의 경우 충동통제를 통하여 비행에 부적인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또래에 대한 신뢰감과 또래로부터 지지를 지각하는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충동적인 욕구를 자제할 수 있어 주위의 유혹이나 위협한 행동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만족스러운 또래관계는 충동통제의 발달과 비행행동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머니와 또래애착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충동통제의 발달에 도움이 되어, 공통적으로 비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어머니와 또래로부터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하고 어머니 및 또래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적절히 욕구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사려깊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비행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충동통제 발달과 비행의 감소에 애착의 중요성이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의 생애 발달적 관점을 지지한다고 본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비행에 충동통제를 매개로 하여 부적인 간접효과만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학생은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도 높아 비행이 감소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여학생의 비행에는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의 비행을 통합하여 추후분석한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들(심웅철, 1992; 심희옥, 1998; Kaplan, 1978; Owens, 1994)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정적 자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아존중감 영역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연구(김희화, 김경연, 2000)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위와 같은 상이한 연구결과들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김희화, 김경연, 2000; Mearthy & Hoge, 1984)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은 무관할지 혹은 이들 간에는 어떠한 모형의 인과관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무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접근을 통한 자아존중감과 비행간의 관계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보다 더 많은 비행을 하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간의 비행은 차이가 없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많은 비행을 한다. 둘째,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어머니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 및 학년이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다. 남학생의 비행에 학년은 직접적인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학년은 또래애착을 통한 간접적인 부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충동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정적 영향도 나타나 비행에 결과적으로 가장 큰 정적인 인과효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충동통제,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어머니 애착의 순으로 남학생의 비행에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비행에 어머니 애착은 직접적인 부적 영향이 나타났으며 충동통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부적 영향도 나타나 가장 큰 부적인 인과효과를 보였다. 그다음으로 충동통제, 또래애착, 학년의 순으로 여학생의 비행에 인과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남학생의 비행에는 학년이, 여학생의 비행에는 어머니 애착이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충동통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행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어머니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충동통제를 통하여 비행에 간접적인 부적 영향이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학생의 또래애착은 충동

통제를 통하여, 학년은 또래애착을 통하여 간접적인 부적 영향만 나타났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비행에 충동통제를 통하여 간접적인 부적 영향이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비행에는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일반청소년들로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비행청소년들이 표집되지 못하여 비행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더 많은 남,여 청소년들이 표집되어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어머니와 또래애착만을 다루었으나 애착대상으로서 아버지는 또 다른 특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도 포함되어,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부모와 또래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선행변인이라고 보았으나 비행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비행과 낮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형의 인과관계 혹은 호환관계가 나타날지는 횡단적 접근보다는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접근을 통한 많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

## ■ 참고문헌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영혜(1998).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배(2000). 부모의 실직상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 남현미, 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또래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민수홍(1998). 초등학교 학생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27(1), 91-108.
- 부선희(1999). 애착,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비행 경향성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란(2001). 청소년의 우울과 귀인유형 및 비행과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중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재인(2000). 청소년의 감성지능과 초기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적응행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8.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오송희(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2), 97-110.
- 이명우(1997). 부산광역시 중·고교생의 비행실태와 예방교육 분석; 청소년 문제와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사학회회 제120차 학술세미나*, 19-50.
- 이미경(1995).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선(2000). 청소년 컴퓨터 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정혜정(2000).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3(2), 1-12.
- 이현수(1992). 충동성. 한국 가이던스 제작.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장휘숙(1998). 애착과 희망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증재역할. *인간발달연구*, 5(1), 117-132.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하영희(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관한 관련변인연구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sarnow, J. R. & Callan, J. W. (1985). Boys with peer

- adjustment problem: Social cognitive processe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3(1), 80-87.
- Barnes, G. H. & Farrel, M. P. (1992).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Barnes, G. M. & Farre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Bowlby, J (1973). *Attachment &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Edwards, W. J. (1996).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 *Adolescence*, 31(12), 973-989.
- Feldman, S. S. & Wentzel, K. R. (1990). Relations among family interaction patterns, classroom self-restrai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813-819.
- Flynn, T. M. (1984). Affective characteristics that predict preschool achievement in disadvantaged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6(3-4), 251-263.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2(5), 373-386.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806-811.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system. In P. 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 4. 275-385)*. N. Y.: John Wiley & Sons.
- Kaplan, H. B. (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 253-277.
- Kochanska, G. (1997).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Implications for early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68, 94-112.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Logue (1995). *Self-control*. New York : Prentice Hall.
- Lowerstein, L. F. (1983). Developing self-control and self-esteem in disturb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4, 229-236.
- Mecarthy, J. D. & Hoge, D. R. (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396-410.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 Rosenberg, M. (1965).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nxie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 135-152.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kole.
- Silverman, I. & Ragusa, D. M. (1990). Child and Maternal correlates of impulse control in 24 month-old children. *Correction,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6(4), 435-473.